

네리마 통신

2023 년 여름호

다언어정보지원인(영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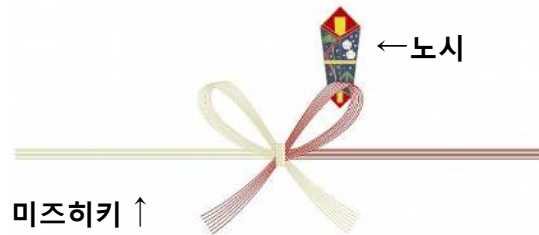
와타누키 미호

오쿠리모노 - 마음을 전하는 선물

일본의 선물에는 독특한 포장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에 담겨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보내는 이유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쓴 「카케가미(선물을 싸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즈히키(카케가미를 묶는 끈)」로 묶고, 카케가미의 오른쪽 위에

「노시」를 붙입니다. 이 형식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는 금(禁)줄로 묶고 살아

있는 전복을 더한 것이 유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즈히키의 색, 줄수, 묶는 방법, 노시의 종류를 사용하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본인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미즈히키(水引)

미즈히키의 기원에는 몇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설은 아스카시대(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견수사(수나라에 파견된 일본 사절)인 오노노이모코가 귀국할 때에

수(현재의 중국)의 답례사가 가져온 진상품이 홍백으로 염색된 마(麻)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궁에 올리는 진상품을 홍백의 마끈으로 묶는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헤이안시대 이후에는 마끈을 색을 푼 물에 넣은채 잡아 당기기를


반복하여 염색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부터 「미즈히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로마치시대(14 세기 중엽부터 16 세기중엽)가 되면 명(현재 중국)이 일본으로 가는 수출품을 다른 물건과 구분하기 위해서 홍백의 줄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측이 선물에 묶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후 일본에서는 선물은 홍백의 끈으로 묶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그때부터 마끈 대신에 와시(일본전통종이) 여러가닥을 풀로 붙여 염색한 코요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볼 수 있는 미즈히키입니다.

미즈히키는 선물을 묶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미개봉이라는 표시, 부적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묶는 방법, 색, 줄의 수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됩니다.

기쁜일에는 홍백, 금은색 등의 홀수(3,5,7 줄 단, 혼례의 경우는 양가에서 각각 5 줄씩 10 줄)로 「무스비키리」 또는 「초우무스비」를 합니다. 조사(弔事)에는 흑백, 은색, 황백색의 짝수(2,4,6)줄로 「무스비키리」 매듭을 짓습니다

<p>「무스비키리」는 「몇 번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에 사용하며 두 번 다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습니다.</p>	
---	--

	<p>「초우무스비」는 풀고 다시 묶을 수 있으니 「몇 번 있어도 좋은 일」에 사용합니다.</p>
---	---

다만, 혼례는 축하할 일이지만 연이 풀리지 않도록 무스비키리를 사용합니다.

노시

노시는 원래 전복(아와비)을 얇게 잘라 히노시(옛날 다리미)로 평평하게 잡아 늘여 말린 것으로 「노시아와비」가 생략된 것입니다. 전복은 장수를 불러오는 운기가 좋은 먹거리이고, 제를 올렸던 장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노시」에는 「잡아늘이다」라는 뜻도 있으니 조사(弔事)에는 불일 수 없고, 날 것인 선물도 그 자체가 살아 있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라비노시

노시는 격식이 있는 선물에는 「오리노시」, 약식에서는 「카자리노시」와 「초우하나가타(나비모양으로 접은 종이)」, 간단한 선물에는 「한노시」와 「와라비노시」 등을 사용합니다.

정리

일본의 선물형식은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알면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대는 손가락 하나로 선물이 전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쁜 이런 편리한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담은 선물은 만나서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요?

사업추진계에서 알림

<문화교류광장 정보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오>

일본어 학습정보와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장소】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 3 - 1 - 1

【전화】 03 - 3975 - 1252

【개설시기】 평일은 오전 10시~오후 1시

토·일·축일은 오후 1시~ 4시

※연말연시 등 「문화교류광장」 휴관일은 제외

【대응언어】 영어 : 화·목·토 중국어 : 수·금·일 한국어 : 월

※그 외의 언어는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어 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지역진흥과 사업추진계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일본어로 여러 가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지역진흥과 (구청 본청사 9층) 네리마구 토요타마키타 6 - 12 - 1

【전화】 03 - 5984 - 4333

【개설일시】평일 오후 1시 ~ 5시

【대응언어】 영어 : 월~금 중국어 : 월~금 한국어 : 금

타갈로그어 : 월 ※그 외의 언어는 문의해 주세요.

일본인과 외국인이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로

【구공식 홈페이지】 <https://www.city.nerima.tokyo.jp/gaikokunohitomuke/bunka.html>

【QR】



네리마구지역진흥과 사업추진계

〒176 - 8501

네리마구 토요타마키타 6 - 12 - 1

네리마구청 본청사 9층

전화 03 (5984) 4333

e-mail:CHIIKI17@city.nerima.tokyo.jp

편집:문화교류 광장

(히카리가오카 3 - 1 - 1)

다언어정보지원인

와타누기 미호 (영어 담당)

호리고메 요시미 (중국어 담당)

한 명현 (한국어 담당)